[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스리랑카 농업 시장 동향

스리랑카에서 농업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 인력은 전체 인구의 25%가 넘는다. 스리랑카는 비옥한 열대 지방에 위치한 덕분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으나, 농업 부문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 농업 경제 성장이 부진하다.

생산성이 낮은 스리랑카 농업

스리랑카의 주요 식용 작물은 쌀이다. 그리고 스리랑카 경제에서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차(茶)는 중부 고원 지대에서 재배된다. 또한, 스리랑카 국내에서 과일, 채소, 유지(油脂) 작물도 재배된다. 시리세나(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은 농업 부문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설정했다. 스리랑카 농업 생산력이 낮은 원인으로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가 적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시리세나 대통령은 농기계 보급률을 높이고, 과일, 원예 및 해외 시장으로 수출이 가능한 고수익성 작물 재배의 비중을 높이려고 한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아 민간 투자자들이 스리랑카 농업 부문에 투자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점도 농업 부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다.

스리랑카에서 수입 식음료 시장 성장

스리랑카는 밀, 렌즈콩, 설탕, 과일, 우유, 유제품 등 다양한 농축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리랑카의 식음료 수입은 전년 대비 9%나 증가한 18억 달러(약 2조 원)를 기록했다. 또한, 스리랑카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 산업의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급 호텔과 리조트, 레스토랑들이 수도 콜롬보(Colombo)를 비롯해 칸디(Kandy), 갈레(Galle) 등 스리랑카의 관광 명소에서 개업했다. 따라서 스리랑카 시장으로 새로운 수입 식품을 들여오기 위한 시장 상황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유명 유통 업체들이 수입 식음료를 진열하기 위한 전용 매대를 신설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주요 수입 농축산품

1. 밀과 렌즈콩

2017년 기준 스리랑카는 약 125만 미터톤의 밀을 수입했으며, 수입량 대부분은 캐나다 산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제분 업체인 프리마 실론(Prima Ceylon)이 스리랑카 국내에서 생산한 밀가루가 스리랑카 내수 시장에서 유통되고, 해외로 수출되기도 한다. 프리마 실론은 스리랑카 동부 트린코말리(Trincomalee)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는 세계적인 렌즈콩 수입 대국으로서 매년 1억 1,400억 달러(약 1,285억 원)어치의 렌즈콩을 수입하며, 물량 대부분을 인도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2. 대두와 옥수수

스리랑카에서는 매년 1억 6,000만 달러(약 1,800억 원)어치의 가축 사료원을 수입한다. 대두와 옥수수가 사료의 원료로써 쓰이고, 생산되는 사료량은 매년 50만 미터톤에 달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사료용 곡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 제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유제품

스리랑카는 유제품 순 수입국으로서 2017년 기준 3억 1,600억 달러(약 3,562억 달러)어치의 우유와 유제품을 수입했다.

4. 면제품

스리랑카는 매년 2억 800만 달러(약 3,155억 원)어치의 면제품(면화·면사·면직물)을 수입한다. 2017년 기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등이 스리랑카 시장에 면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이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스리랑카 농업 시장 동향, 2018. 10. 10.
https://www.export.gov/article?id=Sri-Lanka-Agricultural-Sector&fbclid=IwAR3NWChE1oSXwvGcxuLvGyN78Jl-xDFSpWjavkOJ9G0l8bqO8Xj1rCobbHk